

# 에이스,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KIA 양현종 올 12경기 5승 5패  
63.2이닝 43실점·방어율 5.65  
피홈런·출루허용률 등 전반적 부진  
무더진 체인지업에 직구 위력 반감

팀 '에이스'로 늘 책임감 막중  
팬들 쏟아내는 기대감도 부담  
이닝 부담 내려놓고 다시 출발  
'과감한 승부' 기본에서 해답 찾아야



'위기의 에이스'가 부진 탈출의 답을 찾을까?  
KIA타이거즈는 한층 탄탄해진 선발진을 앞세워 기대 이상의 순위 싸움을 하고 있다.

브룩스와 가봉 두 외국인 투수가 큰 기록 없이 새로운 리그에 적응을 끝내고, '선발 경쟁'을 통해 4·5선발로 역할을 하는 이민우와 임기영도 9승을 합작해졌다.

지난 시즌에 약점으로 꼽혔던 외국인 원투펀치 그리고 예측불허의 4·5선발이라는 고민은 덜었지만, 강렬한 모습으로 2019 마운드를 지켜줬던 에이스의 모습이 아쉽다.

올 시즌 12경기에 나온 양현종은 5승 5패를 기록하고 있다.

양현종은 63.2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43실점을 했다. 이 중 자책점은 40점으로 평균자책점이 5.65까지 치솟았다.

피안타율이 지난해 0.241에서 0.280으로 올랐고, 1.07의 이닝당 출루허용률도 올 시즌 1.41로 상승했다. 또 위기의 순간 쉽게 흔들리면서 주자의 44%가 홈에 들어오는 등 많이 내보내고 또 들어보내고 있다.

흐름을 내주는 결정적인 '한방'도 아쉽다. 양현종은 지난해 6개의 피홈런만 기록했지만 올 시즌에는 벌써 9개의 홈런을 허용했다.

올 시즌 5회도 책임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기 세 번. 4.1이닝 8실점(7자책)한 6월 21일 삼성전, 4.1이닝 8실점을 기록한 7월 4일 NC전에서는 각각 두 개의 홈런을 내줬다.

볼넷 비율은 높아졌고, 탈삼진 비율은 낮아졌다. 지난해 29경기에 나와 184.2이닝을 소화한 양현종은 163개의 탈삼진을 뽑아냈고, 볼넷은 33개로 묶였다. 삼진/볼넷 비율은 4.94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48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는 동안 18차례 볼넷을 허용했다. 삼진과 볼넷 비율은 2.67로 낮아졌다.

로케이션(제구)과 체인지업에서 점수가 세고 있다.

강한 직구로 상대를 압박하고, 체인지업으로 타 이닝을 뺏으면서 상대의 방망이를 헛뜰게 하던 지난해와 차이가 있다.

체인지업의 움직임이 무뎠고 몰리면서 상대 방망이에 쉽게 걸리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키움전



기대에 미치지 못한 2020시즌을 보내고 있는 KIA 양현종이 시즌 16일 삼성전서 부진 탈출을 노린다. 사진은 서재용 코치의 격려를 받으며 마운드를 내려가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에서 박동원에게 내준 홈런도 가운데 낮게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공략당했다. 결정구가 사라지면서 직구 장점으로 반감됐다.

일단 직구에 힘이 붙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직구 평균 스피드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지난해 양현종의 직구 평균 스피드는 142.9km, 올 시즌에는 143.9km를 보이고 있다.

앞선 키움전에서 105개의 공 가운데 70개를 직구로 구사했고, 최고 스피드는 147km 평균구속은 144.5km를 찍었다. 제구가 더 세밀해졌다.

윌리엄스 감독도 "전체적인 로케이션은 지난 등판보다 좋았다. 전체적인 부분은 좋았다"고 앞선

키움전을 평가했다. 이닝에 대한 부담은 악영향을 미쳤다. 양현종의 등판에 앞서 볼펜진이 많은 등판을 소화하면서 '긴 이닝'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양현종은 이날 5회까지 91개의 공을 던지며 2실점을 했다. 6회 다시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은 2루타, 홈런, 3루타 등 잇달아 장타를 허용한 뒤 아웃 카운트 하나만 더하고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긴 이닝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높은 기대감이 양현종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양현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는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선수다. (선발 등판 다음날)웨이트장에도 가장 먼저 왔다. 항상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믿음을 보여줬다.

노련함으로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양현종이다. 이닝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고 분위기 전환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상승세의 직구를 활용한 힘과 힘의 대결, 느린 커브를 활용한 타이밍 싸움, 주무기인 체인지업 구 위 끌어올리기 등 양현종이 어떤 방법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10월 한국 개최 'CJ컵' 美 네바다주 개최 가능성

올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가 개최 장소로 미국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다.

AP통신은 15일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PGA 투어 CJ컵은 미국 네바다주,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인 조조 챔피언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각각 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예정된 PGA 투어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는 모두 3개다.

CJ컵이 10월 15일 제주도에서 개막하고 그다음 주엔 일본에서 조조 챔피언십이 열린다.

또 월드골프챔피언십(WGC) HSBC 챔피언스는 10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막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AP통신은 이날 "올해 아시아 대회는 열리지 않고, 미국 서부 지역으로 옮겨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정상급 선수들이 동아시아 지역까지 원정을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특히 올해 마스터스가 기존 4월에서 11월로 미뤄지면서 10월 이전에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선수들의 동아시아 원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AP통신은 "CJ컵은 바로 전 주인 10월 8일 PGA 투어 대회가 막을 올리는 장소인 미국 네바다주에서 연달아 치르는 방안이 검토되며 조조 챔피언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셔우드 컨트리클럽이 대체 개최 장소로 검토된다"고 전망했다.

중국 상하이 대회는 개최지 변경 가능성은 별로 없고, 최근 중국이 올해 남은 기간에 국제 스포츠 대회를 열지 않기로 한만큼 대회 취소 쪽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AP통신은 "아직 검토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시아 대회들의 개최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CJ 관계자는 "PGA 투어로부터 개최 장소 변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다"며 "선수들의 아시아 대회 출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일단 PGA 투어에 오늘 기사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아시아 대회에서는 CJ컵에서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우승했고 조조 챔피언십 타이거 우즈(미국), HSBC 챔피언십 로리 매킨로이(북아일랜드) 등 세계적인 톱 랭커들이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 카디스 '라리가 1부 승격' 홈팬 1만명에 무료 시즌권

15년 만에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로 복귀하게 된 카디스 CF의 팬 1만여명이 다음 시즌 내내 홈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마누엘 비스카이노 카디스 회장의 '승격 공약' 덕분이다.

2019-2020시즌 스페인 세군다 디비시온(2부리그)에서 선두를 달리는 카디스는 지난 13일에 1부리그인 프리메라리가 승격을 확정지었다.

4라운드까지 치르고 승점 69(19승 12무 9패)를 획득한 카디스는 3위였던 레알 사라고사(승점 62점·17승 11무 12패)에 7점 차로 앞서 남은 2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2위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스페인 프로축구에서는 2부리그 22개 팀 중 1, 2위 팀이 다음 시즌 1부리그로 승격하고, 3~6위 팀은 남은 한 장의 승격 티켓을 놓고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카디스의 승격이 확정되면서 비스카이노 회장의 올 시즌 공약을 기억하는 팬들의 기쁨은 더 커졌다. 비스카이노 회장은 팀이 이번 시즌에 승격을 이루면 연간 티켓 소지자 중 홈 경기를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관람한 팬에게는 2020-2021시즌 연간 티켓을 무료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의 확산 탓에 시즌이 중단됐다가 무관중 경기로 재개되기 전까지 이번 시즌 카디스의 홈 경기는 15차례 개최됐다.

약 1만6000명의 시즌 티켓 구매자 중 60%가 넘는 1만여명이 열다섯 번의 카디스 홈 경기를 모두 직접 관람했다.

1~3경기를 놓친 팬들에게는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 1경기만 관람하지 않은 경우는 정상가의 25% 가격, 2경기를 빠뜨린 팬은 50%, 3경기를 못 본 팬은 75%에 다음 시즌 연간 티켓을 살 수 있다.

한편 카디스가 프리메라리가에서 뛴 것은 2005-2006시즌이 마지막이었다. 2부리그로 강등된 뒤 14년 동안 2부에서 7시즌, 3부에서 7시즌을 보냈다.

/연합뉴스

## 메시·호날두보다 레반도프스키

도박사들, 올 발롱도르 주인공 예측... 英 더선지, 베팅업체 배당률 공개

도박사들은 '2020 발롱도르'의 주인공으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아닌 '폴란드 폭격기'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른 뮌헨)를 꼽았다.

영국 일간지 더선지는 15일 "이번 시즌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골(정규리그 34골 포함 51골)을 작성한 레반도프스키가 메시와 호날두를 제치고 도박사들이 뽑은 2020 발롱도르의 유력한 수상 후보가 됐다"고 전했다.

더선지가 공개한 베팅업체의 '2020 발롱도르' 배당률에 따르면 레반도프스키는 3/1을 기록해 리오넬 메시(4/1), 케빈 데브러위너(맨시티·9/2), 호날두(5/1), 사디오 마네(리버풀·12/1) 등을 따돌렸다.

이어 무함마드 살라흐, 피르밀 판다이크(이상 리버풀), 라힘 스티어링(맨시티·이상 16/1)이 똑같은 배당률을 받은 가운데 킬리안 음바페(20/1), 네이마르(25/1·이상 파리 생제르맹), 브루노 페르난데스(맨유), 엘링 홀란드(이상 33/1), 제이든

산초(이상 도르트문트), 해리 케인(토트넘·이상 50/1)이 뒤를 이었다.

레반도프스키가 받은 배당률 '3/1'은 1달러를 걸었을 때 원금을 포함해 4달러(1달러+3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큰돈을 걸어도 사실상 큰 이익이 없다.

결국 도박사들은 레반도프스키를 2020 발롱도르 트로피의 유력한 후보로 내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31세의 레반도프스키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는 물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다.

레반도프스키는 정규리그에서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골 타이인 34골을 몰아친 데 이어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11골을 쏴냈다. 또 DFB 포칼에서 6골을 터트리면서 이번 시즌에는 51골로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이런 눈부신 활약으로 도박사들은 메시와 호날두가 양분해온 발롱도르의 올해 주인공으로 레반도프스키를 선택했다. /연합뉴스



레반도프스키